온실가스

* 질문 :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시 친환경으로 건설할 시 비 친환경과의 전력 예상량 비교

또한 친환경으로 건설시 배출량이 적어지는대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 할것인지, 이것을 기획서 어디에 넣을지 고민중.

답변 :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건 좋지만 확실한 수치적으론 예상이 안된다.

또한 어떻게 감축하는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다.

또한 판단할 정보가 없다.

기획서 최종피드백

* 시각화 자료만 봤을 때 문제점은 수도권의 전력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이해된다.
* 핵심은 전력공급의 여유분으로 잡고 이 선택이 좋은이유는 온실가스의 주범은 철강 발전등 이므로 데이터센터에서 감소해도 영향은 미미하기때문이다.
* 즉 데이터센터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제어할만한 요소는 적다.

빅데이터 융합방법

* 히트맵이 좀 애매하다. → 히트맵이라는건 분석가의 주관을 보여줄수있는 것. 지역에 통합해서 지역별 컬러 히트맵을 추천한다.
* 광케이블이 중요하다면 발표할 때 어느 지점이든 연결만하면 동일 조건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. → 일반인들은 수도권에 몰려있어 왠지 수도권에 건설해야 할꺼 같은 인상을 준다.
* 태풍 데이터를 활용할려면 강력한 태풍을 시사하거나 강조할 이야기가 필요하다. → 데이터센터에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일반인이 생각하는거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. → 태풍 피해 자료를 예시로 든다.
* 법령: 읽기 싫은 내용이 가득하므로, 중요부분만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강조하기.

기타

*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 비교는 좋은대 시간이 부족하다.
* 가중치 : 가장 중요하다. 명확한 해결책은 없다. 전기차 qgis 분석할때 참고.

특성 변수가 많으면 안된다. → 해석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. 간단하게 하라.

가중치가 약점이라도 발표로 때울수있다. 분석이 목표이므로 중요한것만 채택하기.

* 마인드맵 : 중요하게 안본다.
* 기상 데이터 : 기온데이터를 쓰고 싶은대 괜찮은지.

답변: 그러면 남부로 안내려가지 않나. 임팩트있는 결과는 아니다.

* 나머지 : 주제는 좋은대 결론은 엄청 예상밖이 아니다. 가중치 모델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. 기삿거리나 신문같은걸 참조해도 됨.